

광주문화유산돌봄센터 문화유산 사전 예방관리 ‘시동’

국가지정 32·시도지정 72곳 등 광주권역 175개소

재해 예방 초점…모니터링·경미수리 등 보존·관리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 광주문화유산돌봄센터(센터장 백승현)는 최근 센터 사무실에서 2026년 출범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문화유산 사전예방 관리를 시작했다.

국가유산청과 광주시가 주관하는 국가유산돌봄사업 수행 기관인 광주센터는 국가유산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방문객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광주권역 문화유산 175개소의 상시적 관리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일상관리 및 경미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보존한다.

대상 문화유산은 국가지정유산 32개

소, 시도지정유산 72개소, 비지정유산 71개소 등 모두 175개소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서는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특화 윤리경영을 선언했다.

임직원 일동은 안전한 현장 환경 조성,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는 청렴한 윤리문화 정착, 첨단 관리 시스템 적극 도입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유산 돌봄 실현, 지역 사회와의 소통 강화와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에서 25개의 센터가 국가유산의 상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미한 훼손의 신속한 보수와 재해 발생에 대한 응급



대동문화재단 광주문화유산돌봄센터는 최근 센터 사무실에서 2026년 출범식을 가졌다.

조치 등을 수행한다. 광주센터는 2025년 엔 1966건의 문화유산 돌봄 활동 실적을 냈고, 2026년에는 2300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백승현 센터장은 “인위적이고 자연적

인재로 인한 국가유산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국가유산 재해 예방 활동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수칙으로 현장 직원의 개인 역량을

고도화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전국 최고 수준의 광주센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고흥군, 우주항공청·사천시와 지방살리기 나섰다

특산품 판매·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로 상생 실천

고흥군과 우주항공청, 사천시가 지방살리기에 뛰어들었다.

고흥군은 최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대회의실에서 고흥군·우주항공청·사천시가 함께하는 설 명절맞이 특산품 판매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정책으로, 지난 12월 16일 체결된 ‘고흥군·우주항공청·사천시 간 지역상생 자매결연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자자체와 중앙부처·공공 기관·기업 간 상생 자매결연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흥군은 이에 발맞춰 우주항공청, 사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구체적인 교류

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행사에는 우주항공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흥군과 사천시의 특산품 판매가 진행됐다.

고흥군은 유자차, 김·미역, 다시마 세트, 한라봉 등 설 명절 선물용 특산품을 선보였고, 사천시는 쌀, 토마토, 땅콩 등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함께 판매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공동 홍보와 교차기부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고흥군과 사천시는 상호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교차 기부했으며, 우주항공청 역시 현장에서 임직원의 자율적인 기부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의미를 확산시켰다.

군은 앞으로도 자매결연 협약의 취지를 바탕으로 중앙부처·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



고흥군은 최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대회의실에서 고흥군·우주항공청·사천시가 함께하는 설 명절맞이 특산품 판매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상생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특산품 판매를 넘어, 정부의 지방살리기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한 상생협력의 모범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전남도는 설을 맞아 12일 합평전통시장에서 도로명주소의 편리함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도민 이해를 돋기 위해 합평군과 협동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남도, 전통시장서 주소정보·지적재조사 홍보 합평전통시장서 다중시설 상세주소·생활 속 주소 안내



고광원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시청 시민홀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청렴캠페인을 펼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설 선물 안주고 안받기’ 청렴 캠페인

출근 직원 대상 청렴 실천 다짐…건전한 공직문화 확산

전남도는 설을 맞아 12일 합평전통시장에서 도로명주소의 편리함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도민 이해를 돋기 위해 합평군과 협동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다양한 주소정보 정책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천했다.

특히 전통시장, 농산물직판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누구나 정확한 위치를 쉽게 찾고 우편물과 택배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접종 안내했다. 또한 화재·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정

화한 주소 사용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생활 속 주소 찾기 방법도 함께 훈보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해소와 토지 정형화 등을 통해 도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도 알렸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로명주소 제도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이해가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는 12일 시청 1층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 청렴 캠페인’을 실시.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 사회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광원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음주 운전 균절 등 설 명절 기간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실천사항을 안내하고, 솔선수범을 다짐했다. 또 ‘함께 만드는 청렴한 세상!’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접합(도킹) 형 보조배터리를 직원들에게 배부하며 자발적인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책임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동구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떡국떡 판매 광주시동구새마을부녀회(회장 박미숙)는 최근 동구청광장에서 부녀회원들과 함께 명절맞이 떡국떡을 판매했다. 떡국떡 판매는 지난해 총장축제 새마을푸드코트 부스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마련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훈훈한 명절선물을 준비했다.